

# 한양대학교 2018학년도 논술전형



## 인문계열

성명		지원 학부·학과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유의 사항

1. 90분 안에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2. 답안지는 검정색 펜(샤프, 볼펜, 연필)으로 작성하십시오.
3.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지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4. 다음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 1) 답안지를 검정색 펜(샤프, 볼펜, 연필)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2)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기나 표현을 한 경우
  - 3) 답안을 해당 답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감독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다음 장으로 넘기지 마시오.

[문제] (가)와 (나)를 바탕으로, 공감 능력의 의미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토대로 공감 능력과 관련하여 (다)의 [A]와 [B]를 분석하시오. (1,200자, 100점)

(가)

흄(Hume, D.)은 행위를 자극하는 동기를 이성에서 찾기보다는 고통, 공포심, 증오, 사랑과 같은 감정에서 구했다. 흄에 따르면 이성은 참과 거짓을 밝혀낼 수 있을 뿐, 어떤 의욕도 불러일으킬 수 없다. 이성만으로는 어떤 행동도 유발할 수 없으며 이성은 다만 감정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도구적인 능력에 불과하다. 흄에게 도덕의 원천은 쾌락과 고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쾌락과 고통이 도덕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오직 특별한 종류의 쾌락과 고통, 즉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타인과 함께 하는 보편적인 차원의 쾌락과 고통의 감각만이 도덕심의 핵심이다. 모든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공감(共感)의 능력이 있으며 이 공감 능력이 인간 도덕성의 기초이다. 흄에 따르면 이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것에 쾌감을 느끼게 되며 그것이 바로 선(善)이다.

윤리적 실천에서 공감 능력의 중요성은 배려적 사고에서 잘 드러난다. 배려적 사고는 다른 사람의 필요 욕구나 감정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의 욕구나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것을 말한다. 배려적 사고를 위해서는 도덕적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도덕적 감수성에서 기본적인 것은 도덕적 문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이다. 예컨대 인권 침해 상황을 도덕적 문제 상황으로 지각하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인권에 대한 도덕적 감수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공감 능력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필요 요구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역지사지의 능력에 해당한다.

(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공감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이에 더해 어떤 이들은 우리 사회에 좀 더 많은 공감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부족은 공감의 부족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오랜 대립은 오직 양 측이 상대방의 입장에 좀 더 공감할 때만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감 능력의 윤리적, 사회적 가치는 과장되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충분한 동정심을 느끼며 그들을 배려하는 능력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공감 능력의 원래 뜻, 즉 다른 사람의 느낌, 감정을 충실하게 느끼거나(감정적 공감),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인지적 공감) 능력이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생명이 위급한 중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환자의 고통에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공감한다면 그 끔찍함에 압도당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 인지적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중에는 이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비윤리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많다.

공감 능력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능력과 같다. 비추는 대상은 주목받지만 그렇지 못한 대상은 부당하게 무시될 수 있다. 우리는 허리케인처럼 드물게 발생하는 끔찍한 사건의 희생자에 공감하기는 쉬워도, 통계적으로 훨씬 더 많은 ‘평범한’ 전염병 희생자의 아픔에 공감하기는 어렵다. 재해로 집을 잃은 어린 아이의 생생한 이미지에 공감하기는 쉬워도, ‘차가운’ 추상적 통계 숫자로 제시되는 대중에 공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중 매체에서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지금 현재 벌어지는 비참한 상황에 공감하기는 쉬워도, 미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더 심각한 상황에 공감하기는 어렵다. 장기적 영향을 끼치는 정책적 결정을 내릴 때 공감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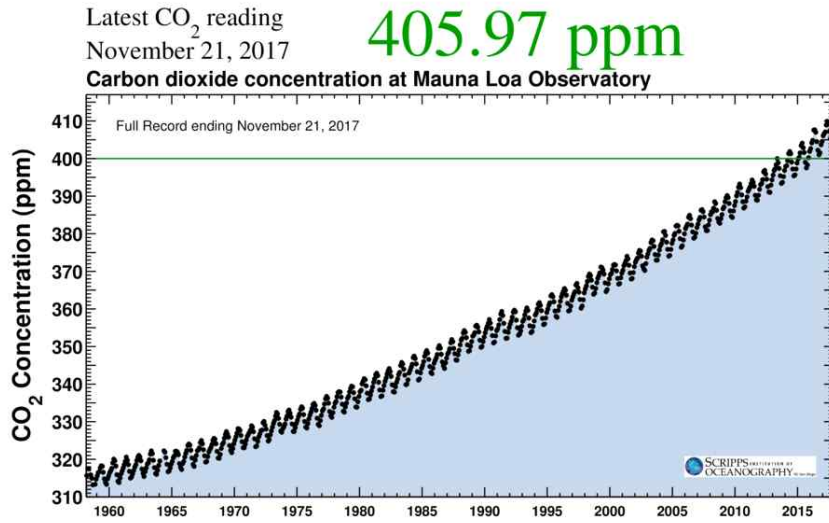
중요한 점은 우리가 특정 윤리적, 사회적 사안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우리는 무엇이 도덕적으로 비난받거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인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맹자가 강조한 측은지심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는 우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다. 그에 비해 공감 능력은 사안의 특정 측면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써 도리어 우리의 도덕적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인지적 공감 능력은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능력은 우리의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방해하는 편견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에 차분하게 숙고하는 비판적 이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다)

[A] (a) 킬링 곡선(Keeling Curve): 온실 기체인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지구 온난화의 결정적 증거로 평가된다.

(b) 북극곰: 지구 온난화로 생존을 위협받는 동물로 자주 언급된다.

(a) 킬링 곡선(Keeling Curve)



(b) 북극곰



[B] 착취 공장(sweatshop): 19세기에 영국 등 산업 선진국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현재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주로 운영된다. 아동 노동과 열악한 노동 환경 등으로 악명이 높아서 국제적으로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